



예수의 푸른계절을 꿈꾸며 함께아는 두손모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박 철수 / 최 경순 선교사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 소망과 함께 맞았던 2022년도 어느새 2월을 맞았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가 끝나리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지만, 올 해의 첫 인사와 소식도 코로나를 언급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더불어,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 역시 여전히 상황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어, 오늘도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현지 성도들을 말씀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국도 여러 상황들이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며, 저희도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그리고 주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선교지의 상황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 선교지 인도네시아의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져서, 요즘은 매일 40,000 여명 이상 씩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워낙 넓게 퍼져있는 섬나라여서, 전국 감염자 조사 자체가 어려워 인도네시아 정부도 엔데믹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사회활동 규제로 인해, 각급 학교의 인터넷 교육과 종교집회 금지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포함한 한국 선교사들의 영혼구원 사역은 여전히 쉽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선교사역 상황



1. 저희가 개척한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와 시안타르 안티오키아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목장 모임과 성경공부 모임으로 모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현재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30명 이하의 소수만 모여 예배를 드렸으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종교집회를 일부 묵인해 주는 방침에 힘입어 지금은 3개 목장씩 번갈아가며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회복되어서, 모두가 감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동역자님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셔서,

저희 사역자를 파송해서 4년 전에 개척한 Siantar Antiokhia 교회도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청 장년들, 그리고 40여명의 어린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안타르 안티오키아 가정교회 목장모임

2. 지난 1월 첫 주에는, 수마트라섬 최고 강성 이슬람 지역에 사는 어떤 자매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침례를 받기 전, 침례의 의미와 변화된 삶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주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때 그 자매가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침례이지만, 강한 무슬림 공동체에 사는 이 자매에게는 삶을 맡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침례식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남길 수 없고, 침례증서조차 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서, 사진을 선교 편지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3.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은, 저희 메단 안티오키아 교회의 개척 8주년 기념일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80여명의 성도들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작은 케익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 주시는 어떤 집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쌀과 기름, 라면과 과자, 마스크등을 담은 생필품 선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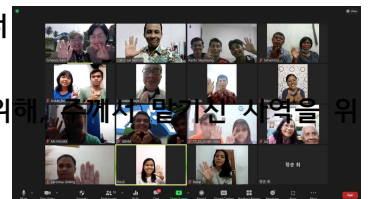
지난 1월 중순에는, 저희 파송교회인 아름다운침례교회에서 많은 양의 마스크를 보내 주셔서, 저희 성도들을 포함, 이곳 선교지의 현지인 목사님들과, 가깝게 계시는 선교사님들까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창궐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무거웠던 많은 현지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4.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무릎꿇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을 작년부터 주셔서, 지난 해 10월부터 대부분의 선교지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새벽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은 수의 성도들만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이 깨달아 알아지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서도 선교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개척 이 전부터 드려왔던 수요기도 모임이 한동안 중단되었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지금은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Zoom을 통해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 이 나라를 위해,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기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올 해의 사역 계획

1. 2022년 7월에는 5명의 사역자들을 위한 안수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 중에, 2명의 전도사와 3명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2명의 전도사를 목사 안수를 할 예정이고, 세 명의 사역자를 전도사로 안수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역 훈련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모두 교회를 개척할 꿈을 가진 사역자들입니다. 주께서 이들의 마음과 뜻을 지키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필요한 선교지 지역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주께서 허락하시면, 올해 년 말 즈음에, 안수 받은 전도사를 파송해서 3번째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파송될 주님의 종이 온전히 헌신하고, 주께 의지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 개척은, 교회 건물을 먼저 임대하거나 교회를 지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교회 형태로, 가정에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정교회와 목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 그리고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척을 위해 저희 교회에서 수 년간 박 선교사와 함께 목장을 섬겨왔고, 목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선교지의 교회,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서의 교회는 먼저 가정교회 형태여야 합니다. 이 교회개척의 비전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서, 이 곳 선교지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역이 잘 선정되어지고, 개척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예배 비품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가정교회 개척의 비전을 나누며, 함께 이루어 갈 선교 동역자들이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임들 역시 한동안은 비대면으로 진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예배와 교육을 위해 선교지에 몇 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심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노트북 1대, 모니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가 더 필요합니다.)

* 박철수 선교사의 기도 부탁

1. 선교지를 위한 기도

-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조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교지의 사역에 너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모임과 믿음이 연약한 새 성도들을 위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전도사, 목사 안수식을 위해, 그리고 계획 중인 연말 교회개척 파송을 위해.
- 이 어려운 시기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 악한 영들이 선교지 교회를 위협하거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2. 박철수, 최정순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 작년 말 수술한 부위의 재진료를 위해 잠시 귀국한 최정순 선교사가 지난 주말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아들, 딸, 사위, 손주(2살)까지 모두 감염이 되었습니다.
권능의 주께서 치료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박 선교사와 최 선교사가 더욱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 지도록.
- 인도네시아 전체선교사들의 모임인 한선협이 준비 중인 6월 전체 수련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으로 섬기는 박 선교사에게 주께서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도록.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님들이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소망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서로 만나 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메단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계절을 꿈꾸는 박 철수, 최 정순 선교사 드림